

올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행 '역점'

신재생에너지협, 금융지원·해외시장 개척 추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 교육지원에도 힘쓸 것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실천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국신재생협회(회장 윤동준)는 9일 서울 플라즈호텔에서 2018년 정기총회와 신년인사회를 열고 지난해 사업 보고와 올해 사업계획, 예산, 임원선임 등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윤동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회장은 이날 축사에서 "지난해 말 태양광, 풍력 중심의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이 발표됐다. 이행계획에 계통 접속·민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이 담겼지만 지자체에서 실행에 옮기다보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수시로 협회회원 간에 고민을 나누며 산업부와 소통해 재생에너지 3020을 성공리에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해외시장도 공략해 에너지분야가 수출 중목으로 호자노릇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재생에너지 3020 실천과 산업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과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사업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운영해 교육 지원에도 힘 쓸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협회를 이끌어가는 임원인사 선 정도 진행됐다. 박해숙 대양수력 대표와 조현수 한화큐셀코리아 대표가 신임부회장으로 선임됐으며 금만희 다스텍 대표, 류지운 유니스 대표, 서기섭 대명지이씨 대표, 정지택 두산중공업 대표는 재임이 결정됐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신재생에너지기술과 4차산업혁명 기술이 융합해 에너지 산업이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바"라며 "재생에너지 3020 계획으로 세계적인 변화에 저지도 동참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업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투자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입지규제, 계통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과 민간 투자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지 인턴기자 kimyj@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9일 서울 웨라톤 서울플라즈호텔 로열볼룸에서 열린 '2018년 신재생에너지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일렉트릭 지자체와 손잡고 신재생 사업 확대

여주시·동서발전과 200억원 규모 '에너지 신산업 업무 협약' 체결 자전거도로 등 5.7km 구간 태양광설비·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현대일렉트릭(대표 주영걸)이 여주시 자전거도로에 200억원 규모의 태양광설비를 구축하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현대일렉트릭은 최근 여주시청에서 여주시, 동서발전과 '여주시 에너지 신산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주영걸 현대일렉트릭 대표, 원경희 여주시장, 박희성 동서발전 사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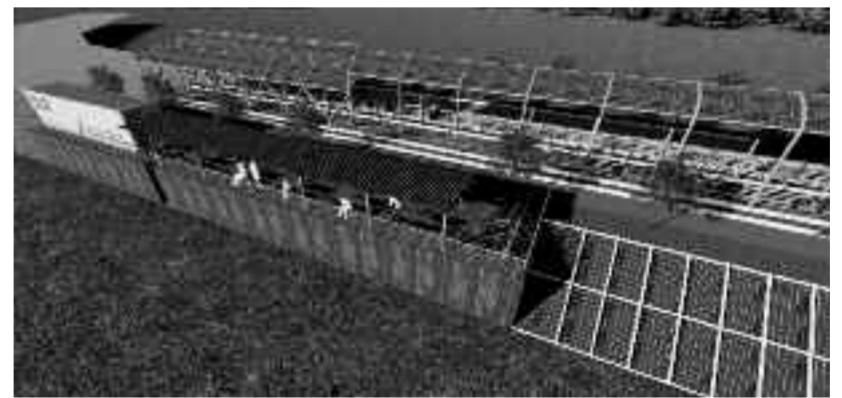
해당 사업은 여주시 남한강 일원의 자전거도

원을 맡는다. 여주시는 이번 사업의 수익 일부를 소외계층 지원, 지역 행사 후원 등 지역발전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신재생 인력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향후에도 현대일렉트릭과 함께 지역 에너지 효율화 사업, 제로에너지 다른 개발 등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을 진행해



현대일렉트릭과 여주시, 동서발전 간 '여주시 에너지 신산업 업무협약' 체결식 장면(왼쪽 첫 번째부터 주영걸 현대일렉트릭 사장, 원경희 여주시장, 박희성 동서발전 사장직무대행).



남한강 인근 산책로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로 2.5km 구간과 여주보 인근 산책로 3.2km 구간에 6.5MW 규모의 태양광패널을 지붕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과 동시에 주민들은 우기에도 비를 피해 관련 시설들을 관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20.5MWh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도 설치,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 자전거도로와 산책로에 조명을 밝힐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자치단체와 공공 및 민간기업이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는 최대 규모다. 현대일렉트릭은 올해 하반기까지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대일렉트릭은 이번 사업에서 엔지니어링, 자재조달, 시공 등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여주시는 인허가 등 행정적인 지원을, 동서발전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매입 등 전반적인 지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지역 내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울 것"이라며 "시민들을 위한 지역발전 기금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영걸 현대일렉트릭 대표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수익을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는 모범적인 사업 구조"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 지자체들과 적극적인 사업 협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일렉트릭은 지난 2010년부터 울산광역시, 제주시, 경상남도 통영, 강원도 태백시 등 여러 지자체 및 민간기업들과 함께 '마이크로 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 에너지관리솔루션(EMS) 등 각종 에너지 신산업을 진행하며 차세대 전력 계통 확대를 선도하고 있다.

송세준 기자 tssj@

농어촌 사회적경제 조직에 태양광발전시설 무상 지원

에너지재단, '농어촌 햇빛마을 조성 사업' 신청 접수

에너지재단은 농어촌 사회적경제 조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한국에너지재단은 '농어촌 햇빛마을 조성 사업'의 올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촌 햇빛마을 조성 사업은 한전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부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읍면 지역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전기요금 절감 등으로 자립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사회적경제 조직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읍면 지역에 위치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회복지시설, 취약가구다. 부지의 적합도, 사업 경제성, 전력계통 연계 등과 신청자의 공익성, 수익금 활용 계획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대상을 선정한다.

올해는 각 지원 대상마다 최대 1억5천만원 예산으로 최대 100kW, 총 1800kW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목표다. 사회적경제 조직 30곳에 100kW 이하, 사회복지시설 50곳에 10kW 이하, 취약계층 100가구에 1kW 이하급 태양광 패널을 각각 설치해줄 계획이다. 만약 100kW짜리 태양광 발전 시

설을 설치한다면 1년에 22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설치 부지는 지원 대상 단체에서 확보해야 한다. 50~100kW 규모 시설의 경우 660~1650㎡의 부지가 필요하다. 지원 대상 단체는 부지에 대한 소유권, 임차권이나 사용권을 보유해야 하며 주변에 큰 건물이나 산이 있어서 태양광발전이 어려운 곳이나 지자체로부터 개발·발전 허가를 받지 못하는 곳은 제외된다. 노지, 농지, 산지 외에 건물, 주차장, 풍터 등도 활용 가능하지만 공공유지나 학교 부지 등은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나 사회복지시설은 구비 서류를 작성해 2월 19일까지 에너지재단 신청시스템(<http://solar.koref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 취약가구는 신청시스템 공고를 참고해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에너지재단이 한전 기부금으로 지원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사업은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이뤄진 1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올해 2차로 진행된다. 재단은 지난해 한전의 공모를 거쳐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됐고 지난 1월 23일 상생협력기금을 운용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사업 수행 수탁자로 최종 확정됐다.

이현수 인턴기자 hslee@

파워프라자

0.5t 전기트럭 판매 시작

차량가격 1500만~2000만원선

파워프라자는 올해 정부 보조금 지원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0.5t 전기트럭 판매를 시작했다.

최근 국내 유일의 경상용 전기차 '피스'의 보조금이 국고 1100만원, 지방비 500만~11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차량 가격은 지역에 따라 1500만~2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워프라자는 피스 판매 준비를 완료하고 관공서와 개인, 법인기업 등에 피스 보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미 부산에서 첫 판매가 이뤄졌고, 지난해에 비해 구매 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피스는 0.5t 전기트럭으로 크기는 작은 대신 시장이나 대형공단, 창고처럼 협소한 장소에서 활용도가 높다. 전기로 움직이는 만큼 유지비도 적게 들고, 매연과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위대용 기자 wee@

국내 최대 100MW급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동'

한수원, 화성시·화성솔라에너지와 공동개발협약 체결

한수원이 국내 최대 규모인 100MW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나선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12일 화성시청에서 경기도 화성시와 화성솔라에너지 등과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설비 건설 및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순록 한수원 그린에너지본부장과 채인석 화성시장, 윤진수 화성솔라에너지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화성호 100MW 수상태양광 공동개발' 사업은, 사업규모는 2200억원에 달한다. 한수원은 화성시 화성지구에 위치한 화성호(1044만 1000㎡)의 약 8.3%에 해당하는 86만 1000㎡를 장기 임차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순록 그린에너지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수원과 화성시, 화성솔라

에너지는 수상태양광발전사업 뿐 아니라 화성시 신재생에너지 사업 개발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수원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해 원전본부 및 양수발전소 유휴부지 자체사업과 대규모 사외부지 매입·임대 등 사업방식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또 2030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해 태양광·풍력 위주의 신규 신재생설비 7.6GW를 확보할 계획이다.

조재학 기자 zjh@

한전에너지솔루션, 공공체육시설 E효율화사업 추진

대명에너지와 수원월드컵경기장 ESS사업 진행

공공체육시설인 수원월드컵 경기장에서 에너지효율화사업이 실행된다.

한전에너지솔루션(사장 최인규)은 8일 수원월드컵 경기장 회의실에서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한규택), 대명에너지(대표 이사 서기섭)와 함께 '수원월드컵경기장 에너지효율화사업 공동 추진 업무협약'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관계사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에너지효율화사업은 수원월드컵경기장 주요 시설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절약, 전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전에너지솔루션과 대명에너지는 상반기 중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사업을 추

진하고, 이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포함한 효율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전에너지솔루션은 효율화 사업 총괄과 성과측정, 사업투자재원을 담당하며 대명에너지는 EPC 역무 등 공사 관리를 맡는다.

특히 한전에너지솔루션과 수원월드컵경기장은 정부 에너지신산업 정책에 부응하는 ESS 보급을 선도하고자 이를 우선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월드컵 경기장은 이번 효율화사업을 통해 절감되는 비용을 투자비용상환에 우선 사용할 예정이다.

김예지 인턴기자

Klauke GREENLEE HDE

'기술을 넘어선 혁신'
Klauke, 스마트를 더하다.

ESMS0CFM Mini 케이블커팅기 최대 Ø50mm

EK50ML 마이크로 압착기 동관단자 0.75-25mm² 압착단자 0.5-10mm²

ESGR60 가이시 케이블커팅기

TILT-II 변압기 테스터기

www.ikesco.com | KESCO CO., Ltd. | 서울시 명동포구 경인로 775 메이스타이테크시티 3동 303호 Tel. 02-2614-0989 Fax. 02-2614-0966

국내 최대 100MW급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동'

한수원, 화성시·화성솔라에너지와 공동개발협약 체결

한수원이 국내 최대 규모인 100MW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나선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12일 화성시청에서 경기도 화성시와 화성솔라에너지 등과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설비 건설 및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순록 한수원 그린에너지본부장과 채인석 화성시장, 윤진수 화성솔라에너지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화성호 100MW 수상태양광 공동개발' 사업은, 사업규모는 2200억원에 달한다. 한수원은 화성시 화성지구에 위치한 화성호(1044만 1000㎡)의 약 8.3%에 해당하는 86만 1000㎡를 장기 임차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순록 그린에너지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수원과 화성시, 화성솔라에너지는 수상태양광발전사업 뿐 아니라 화성시 신재생에너지 사업 개발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수원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해 원전본부 및 양수발전소 유휴부지 자체사업과 대규모 사외부지 매입·임대 등 사업방식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또 2030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해 태양광·풍력 위주의 신규 신재생설비 7.6GW를 확보할 계획이다.

조재학 기자 zjh@

한전에너지솔루션, 공공체육시설 E효율화사업 추진

대명에너지와 수원월드컵경기장 ESS사업 진행

공공체육시설인 수원월드컵 경기장에서 에너지효율화사업이 실행된다. 한전에너지솔루션(사장 최인규)은 8일 수원월드컵 경기장 회의실에서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한규택), 대명에너지(대표 이사 서기섭)와 함께 '수원월드컵경기장 에너지효율화사업 공동 추진 업무협약'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관계사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에너지효율화사업은 수원월드컵경기장 주요 시설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절약, 전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전에너지솔루션과 대명에너지는 상반기 중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사업을 추

김예지 인턴기자